2025년 5월 9일 금요일

LOCAL 함평나비대축제, 12일간 22만명 방문 '흥행'



영광, 전남 최대 허수아비 전시 찰보리축제장서 700여점 준비

영광군은 10일부터 11일까지 지내들 돌탑공원에서 열리는 제11회 영광찰보리 축제장에 전남 최대 규모의 허수아비가 전시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축제장에는 700여점의 다양한 허수아 비가 설치되며, 이는 전남에서 가장 큰 규 모로 보리밭 둘레길과 바람개비 길을 따 라 조성된 이색적인 전시 풍경은 방문객 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허수아비 전시는 지난 4월 26일 '제2회 전국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 에 참가자가 직접 제작한 창의적인 허수 아비들이 함께 전시, 관람객에게 독특한 시각적 즐거움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선 사한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

무안, 영산강 기초번호판 설치

무안군은 영산강 강변도로와 자전거길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위치 알림 기초번 호판을 설치했다고 8일 밝혔다.

기초번호판은 도로명과 구간마다 일정 간격으로 부여된 기초번호를 바탕으로 주 변에 건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도로에서도 해당 지점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설 치된 주소정보시설이다.

군은 강변도로와 자전거길 이용자가 증 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 응이 가능하도록총 90개소에 기초번호판 을 설치했으며, 향후 산책로·공원 등 보 행자 안전사고 대응이 필요한 구간으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초번호판 설치로 강변도로와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군민들 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도 군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와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 다"고 말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입장수입 8억4900만원… 명예문화관광축제 입증 이상익 군수 "공감·참여 축제···내년 콘텐츠 확대"

봄의 길목에서 12일간 펼쳐진 제27회 관광축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함평나비대축제에 22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중심으로 기획됐다.

비 20% 증가한 22만4098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며 입장료 수입은 8억4900만원을 체험 기회를 선물해 가장 많은 인기를 끌

지역 주민이 참여한 농특산물 판매장은

올해 나비대축제는 호랑나비, 배추흰나 비 등 17종 20만마리의 나비와 메리골드 8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비, 황금박쥐 루피너스, 꽃양귀비 등 30종 50만본의 다 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올해 나비 채로운 꽃, 그리고 다양한 공연, 체험 프 대축제는 '나비'와 '황박이(황금박쥐)'라 로그램을 제공하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는 함평의 두 대표 생태 아이콘의 만남을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축제에서는 다양한 생태 체험과 차별화 특히 중앙광장 야외 나비생태관에서 올 된 창의적인 콘텐츠가 어우러져 전년 대 해 새롭게 선보인 '나비 먹이주기 체험'은 살아 있는 나비와 교감할 수 있는 특별한

이와 함께 '실내외 나비 날리기 체험', 의 흥을 한껏 끌어올렸다. 2억98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편의점· 예술 퍼포먼스와 나비날리기를 결합한 체험 부스 등 입점 업체는 7억8000만원의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 '나비·황박 하는 함평의 청정 자연을 알리기 위해 올 매출을 올리며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 이 가면 만들기', '나비 의상 체험' 등 함 해 처음 선보인 캐릭터 '황박이'는 황박이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에 22만여명이 방문했다.

평에서만 볼 수 있는 나비 콘텐츠로 축제 ·뽐비 팝업스토어, 황박이 포토존, 황박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황금박쥐가 서식 며 금값 상승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황 금박쥐 조형물과 함께 관광객의 이목을

이상익 군수는 "황박이라는 상징 캐릭 이 모자, 황박이 인형탈 등으로 재탄생하 터를 통해 누구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 는 축제로 만들었다"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완성도 높은 콘텐츠로 찾아뵙겠 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해남공룡대축제, 어린이 대표축제 '우뚝'

공룡박물관 곳곳 인산인해 12만여명 찾아 '역대 최대'

'해남공룡대축제'가 역대 최대인 12 만8000여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흥행 대박을 터트렸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3~5일 공 룡박물관에서 열린 해남공룡대축제에 12만8185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 다.

어린이날을 포함한 긴 연휴로 전국 각지에서 축제를 찾았다.

해남공룡박물관은 어린이날을 포함 해 가정의 달 기간 방문객 수가 대폭 증 가하는 가족 나들이 명소이지만, 올해 는 지난 2007년 박물관 개관 이래 최대 인파가 몰리면서 축제 장소인 잔디광장 은 물론 박물관 내부까지 관람객으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북적이 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4일 하루 에만 5만7000여명이 방문했을 정도

http://in-point_kr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방문객들은 국 내 최대 규모 공룡박물관에서 1억년 전 공룡의 세계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한 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공룡을 주 제로 한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축제 의 한마당을 만끽했다.

축제의 주무대인 잔디광장에서는 티 니핑, 핑크퐁 등 어린이 취향 저격의 공 연과 풍선쇼, 버블쇼, 마술쇼 등이 하루 종일 이어져 어린이들의 열광적인 호응 을 이끌어 냈다. 저녁에는 윤도현밴드, 허각 등 인기가수들의 가족음악회가 열

려 성인들도 축제의 무대를 함께 즐겼 다. 야간에는 공룡박물관의 연못을 활 용해 우리나라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 이가 펼쳐져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내 기도 했다.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관람시설이 박물관은 지루하다는 인식을 깨고, 새 로운 관람객들을 끌어모았고, 축제 기 간 야간개장을 통해 조명을 아름답게 밝힌 공룡 화석지의 경관에서 인생샷을 건졌다는 후기가 이어졌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완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 성료

유채꽃 만끽하며 힐링…5만명 다녀가

'2025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가 5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축제는 '청산도에서 낮밤없이 놀 아보세'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방문객들 은 청산도를 물들인 유채꽃을 만끽하며

한달간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에 5만198

특히 축제 대표 프로그램인 '청산도에 걸으리랏다'에는 1400여명이 참여, 슬로 길 11개 코스를 걸으며 청산도의 봄을 만

야간 걷기 프로그램인 '청산도 달빛 나 었다. 이트 워크'와 은하수와 함께 인생 사진을 찍어보는 '별 볼 일 있는 청산도'도 전 회

차가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다. 건기와 환경보호를 동시에 실천하는 '슬로길 플로깅'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해 쓰레기를 수거한 후 친환경 키트를 받

신규 프로그램이었던 구들장 논에서 재 는 시간 보냈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한 쌀로 만든 떡을 나눠 먹는 '구들장



논 방앗간', '범바위 기(氣) 팔찌 만들 기', '청산도 보이는 라디오'도 인기를 끌

주민들은 '청산도 주민 관광청'을 통해 축제 준비와 운영 과정에 참여, 주민 주도 적 축제를 만들어 가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주민들의 협조 와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 덕분에 축제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슬 로시티 청산도를 찾은 분들 모두 힐링하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사오니,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으신 분은 본 공고 게재 익일부터 2개월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 합니다.

> 2025년 5월 9일 시화문화마을협동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대로 93(각화동) 청산인 박영옥



